



SON, 토트넘 최고의 선수

스카이스포츠, EPL 20개 구단 팬 투표
토트넘 팬들 틱서 가장 높은 57% 지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28·토트넘)이 팬들이 뽑은 2019~2020시즌 토트넘 내 최고의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영국 스포츠전문매체 스카이스포츠는 12일(한국시간) 팬 투표를 통해 선정한 2019~2020시즌 EPL 20개 구단별 최고 선수를 발표했다. 이번 투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리그가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뤄진 가운데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에게 57%의 지지를 보였다. 팀 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EPL에서 9골·7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5골·1도움, FA컵에서 2골 등 올 시즌 총 16골을 터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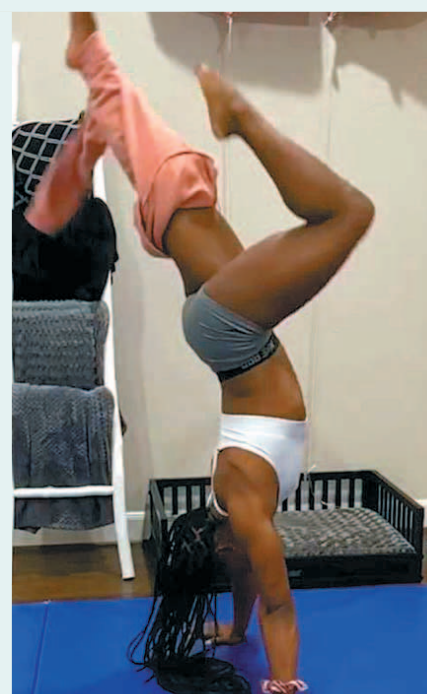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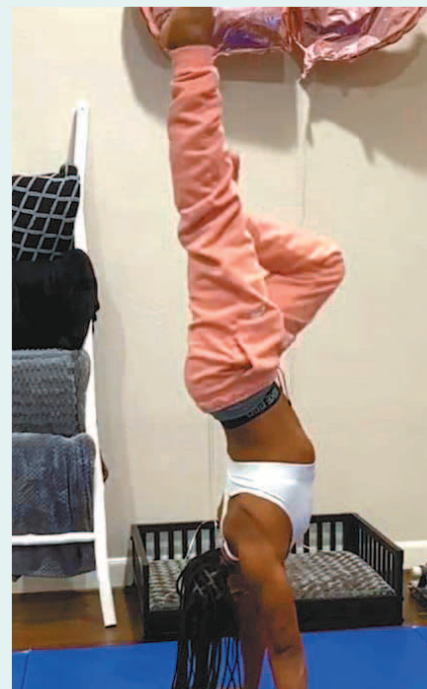
스카이스포츠는 “손흥민이 부상으로 골을 이어가진 못했지만 리그에서 9골·7도움을 기록했다.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손흥민이 공백을 메웠

다. 특히 아스톤빌라(2월 16일)와 경기에서 팔 골절에도 불구하고 2골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아스톤빌라전에서 팔 부상으로 수술대에 오른 뒤 재활기간을 거쳤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인게임에서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특례 대상이 된 그는 20일 제주도의 해병 9여단에서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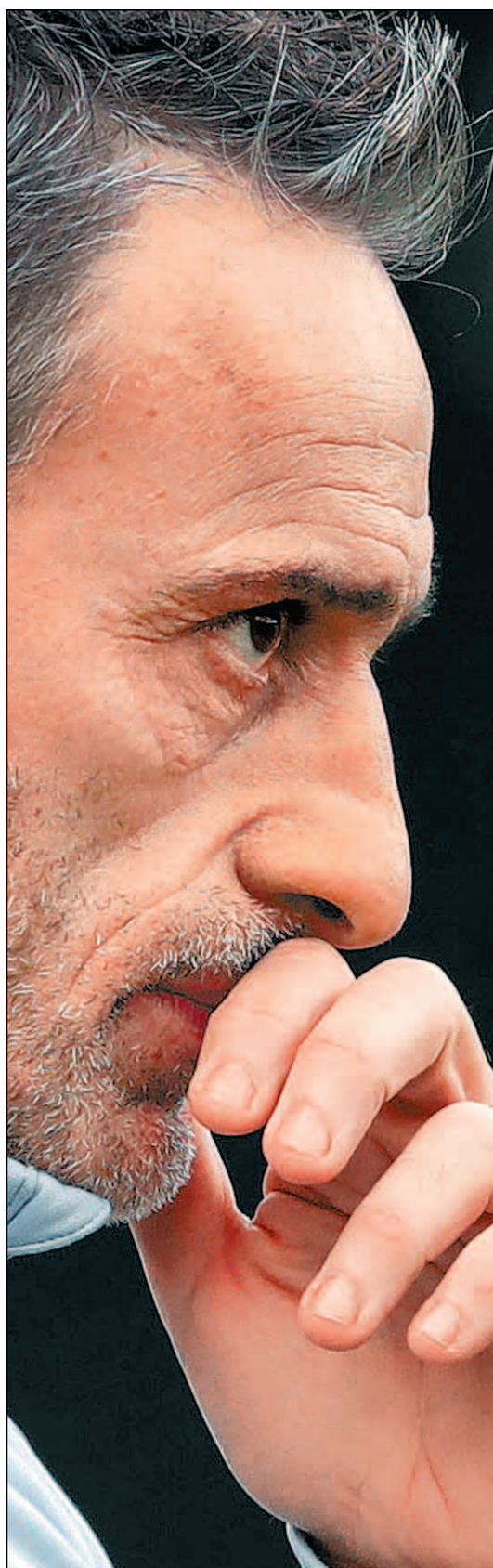
‘체조의 전설’ 시몬 바일스 물구나무서서 웃бет기 신공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4개의 금메달을 휩쓰는 등 기계체조 여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시몬 바일스(미국)가 12일(한국시간) 자신의 SNS에 ‘물구나무 챌린지’ 영상을 올려 화제다. 바일스는 물구나무를 선 채 두 다리만으로 분홍색 트레이닝복 하의를 벗는 묘기를 선보였는데(사진 위부터) 걸린 시간은 57초에 불과했다. USA투데이는 “바일스만이 할 수 있는 동작”이라고 평가했다. 사진 캡처 | 시몬 바일스 SNS

스포츠동아

2020년 4월 14일 화요일
sportsdonga.com 10판



사실상 9월까지 A매치 0경기

축구협회 “난감하~네!”

협회 사업중 A매치 가장 큰 비중
월드컵 예선 10·11월 홈 3경기
벤투호 휴업중...사업 수정 불가피
FA컵·K3리그 원활한 운영도 숙제

한국축구의 2020년도 연간 스케줄에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다.

일상이 마비된 가운데 전 세계 스포츠 역시 ‘올 스톱’ 상태다. 올 여름 개최 예정이던 국제 스포츠 최대 이벤트인 하계올림픽과 2020 유럽축구연맹(UEFA) 유럽축구선수권대회 등이 내년 여름으로 미뤄진 상황에서 ‘정상화’를 운운하기는 힘든 형국이다. 지금으로선 시간이 흐르고 전염병이 사라지길 기대할 뿐이지만, 남미와 아프리카 등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기 시작해 불안감을 더한다.

국제축구계의 연간 일정은 이미 상당 부분 조정됐다. 특히 상반기는 사실상 통째로 삭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캘린더가 텅 비어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최근 지아니 인판티노

회장이 의장을 맡고 각 대륙연맹 회장들이 참석하는 실무그룹 회의에서 3월과 6월 A매치 계획을 후반기로 미뤘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경우 2022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이 정리됐다. 모국에 머물고 있는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은 3월 튀르키예니스탄(홈)~스리랑카(원정)와 2연전을 치른 뒤 6월 북한~레바논(이상 홈)과 맞설 예정이었지만, 각각 10월과 11월로 연기됐다. 이에 올 하반기 시작하려면 최종예선도 내년 3월 이후로 밀리게 됐다.

FIFA의 2020년도 A매치 캘린더에 따르면,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A매치를 진행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시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부분의 유럽리그는 2019~2020시즌을 여름까지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아시아 권역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를 비롯해 그간 미뤄진 여러 대회를 소화해야 한다.

이 같은 FIFA 실무그룹의 결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AFC를 통해 전달받은 대한축구협회의 고민도 상당하다. 원칙적으로는 9월 A매치가 가능하지만, 수개월 이후의 상황을 놓고 섣불리 김치국을

마실 순 없다. 더욱이 AFC는 각 회원국과의 미팅 시점도 잡지 않았다. 말레이시아 팔라렐푸르에 위치한 AFC 본부는 5주째 문이 닫혔고, 다국적 직원들은 이달 말까지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일단 협회는 9월은 배제한 채 안방 A매치 3경기를 치를 10~11월의 최대치 붐업을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매치는 협회의 연간 사업계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물론 협회의 걱정은 대표팀이 전부가 아니다. 국내대회의 원활한 운영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형 승강제의 중추를 담당할 통합 K3·K4리그가 특히 걱정스럽다. 프로축구 K리그1·2가 아직 개막 시점도 잡지 못한 터라 하부리그가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은 부담스럽다. 또 프로·아마추어의 최강자를 가리는 FA컵과 초·중·고·대학대회의 포맷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협회 관계자는 “지금은 9월을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상황이 좋아지고, 필요하다면 월드컵 2차 예선을 10~11월보다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리하고 정확한 방향 설정과 계획 추진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코로나19의 여파로 상반기 국제축구 일정은 대부분 연기됐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도 개점휴업 상태다. A매치의 비중이 높은 대한축구협회의 연간 사업계획 수정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스포츠동아DB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내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소중한 한 표가 당신을 주인으로 만듭니다. 공휴일인 내일(15일)자 신문 쉽니다. sportsdonga.com 뉴스서비스는 계속됩니다.

Returnup 리턴업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

건강기능식품 18 (600mg) X 30알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비타민(A, C, E, 베타카로틴) 미네랄 2종 (아연·구리)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추출물

중장년의 침침하고 흐린 눈엔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

눈의 중심부인 황반의 구성 성분 ‘루테인’과 ‘지아잔틴’

수정체를 통해 들어온 빛이 상으로 맺히는 부분인 황반은 사상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눈의 중심 부분입니다. 황반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색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화로 인해 황반을 구성하는 색소밀도가 감소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흐려지게 됩니다. 중장년의 눈 건강, ‘루테인·지아잔틴 복합추출물’로 챙기십시오!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눈 건강기능식품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는 식약처 1일 권장섭취량(20mg)을 충족하는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캡슐로 눈 건강과 기초 영양까지 케어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 뿐 아니라 기초 영양 케어를 위해 1일 권장량을 100% 충족시키는 비타민 4종(A, C, E, 베타카로틴)과 미네랄 2종(구리,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6개월분 구매 시
정상가대비 **41% 할인**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330-9988